

자활일기

vol. 25
2019

자활이슈

거리노숙인 여러분 함께해요!

Zoom in 자활

협업하며 먼저 시작하는 센터,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

리서치 자활

Born to be 공공(公共), 자활

자활특독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는 방법,
어린이 매너 교육이 그 시작입니다.



9 772288 044007
ISSN 2288-0445

2019년 7월~12월

총 10개소의 거리노숙인 운영센터가 시범 운영중입니다!

(사례관리자 파견 8곳, 비파견 2곳)

-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용산지역자활센터
- 햇살보금자리 일시보호시설 열린복지 디딤센터
-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창원지역자활센터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



CONTENTS

자활이슈

- 02 특집1 거리노숙인 여러분 함께해요!
- 08 특집2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소개합니다.

자활현장

- 10 찾아가는 자활현장 너도, 나도 재미나,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 16 자활읽기가 만난 사람 애독자 김창현씨를 만나다.
- 18 꿈이 자라는 일터 자활로 취업보내기
- 22 함께하는 자활 강원광역에서 전하는 이야기
- 26 Zoom in 자활 협업하며 먼저 시작하는 센터,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

자활플러스

- 30 리서치 자활 Born to be 공공(公共), 자활

자활산책

- 36 Now&News 중앙자활센터 하반기 뉴스
- 38 독자 참여코너 자활고사를 잘 보려면? '자활읽기' 다시보기!
- 39 자활특독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는 방법, 어린이 매너 교육이 그 시작입니다.

〈자활읽기〉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자활읽기〉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www.kdissw.or.kr) → 홍보 → 간행물(자활읽기)에서
e-book(전자책)과 PDF파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ISSN 2288-0445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읽기〉 통권 제25호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02-3415-6900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13, 삼창빌딩 5층 www.kdissw.or.kr
디자인·제작 좋은PR소아 070-4616-4040~3 이미지 Getty Images Bank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의 자료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하며,
외부 필자의 글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리노숙인 여러분, 함께해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통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 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국가를 실현
-20대 국정전략 중-



사연 1. 은행에 간 거리노숙인 A씨

내 이름을 오랜만에 써 봐요.

특화자활근로에 참여한 거리노숙인 분들에게 7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통장을 발급하러 가까운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참여자 노숙인 18명 중 13명이 금융채무연체 자일 정도로 경제상태가 좋지 않고 은행거래를 몇 년 만에 해보는 분들이 많네요. 기존통장이 압류되었거나 새 통장을 만들어도 압류될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상황입니다. 통장을 개설하려면 서너 장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예닐곱 번의 서명을 해야 하는데, 최근에 글을 써 본 거리노숙인 분들이 많지 않네요. 신청서류를 보자마자 머릿속이 아파온다며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냐”고 화를 내면서 주저주저합니다. 글 쓰는 것에 익숙지 않아 글을 대신 써달라고 하지만 서명만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데, “살면서 이렇게 내 이름을 많이 써 본 적이 없다.”며 허허 웃습니다. 글자도 뻘뻘뻘, 철자도 열기설기, 어순도 뒤죽박죽에다 어떤 분은 여섯 번의 이름이 다 제각각이고 글자보다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중고등 교육과정을 받은 저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낯설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정상적인 교육과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지게 살아온 분들이 많은 거죠. 서명하는 모습 속에 이 분이 어렵게 살아왔을 과거사가 한눈에 스쳐지나가 마음이 아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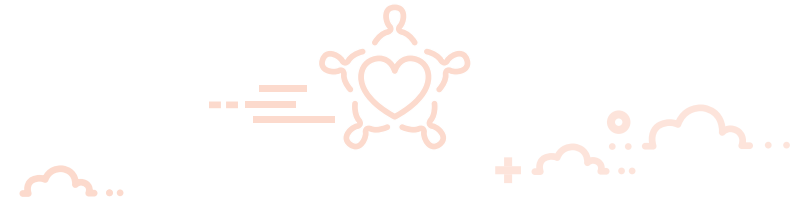


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이란?



거리노숙인에게 맞춤형 일자리서비스 지원을 통해 탈 노숙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자활사업

- ☑ 2019년 현재, 전체 노숙인 규모는 줄고 있으나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거리노숙인이 대도시에서 만성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 이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거리노숙인 만성화 해소를 위한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연계 등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거리노숙인특화자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보건복지부(사업 총괄)-한국자활복지개발원(사업수행 총괄)-자활사업실행기관(노숙인 자활사업 실행)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목표는 거리노숙인 200명 참여!

2019년 5~6월 사업 실행기관 공모 시 선정된 10개의 실행기관에서 2019년 7~12월 6개월간 시범사업이 운영되며 거리노숙인 200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내용	목표
맞춤형 일자리 지원	200명
치유프로그램 제공	200명
사례관리 지원 (주거 지원, 의료 지원, 주민등록 지원, 신용 회복, 자활경로 설정 및 연계)	200명

- ☑ 거리노숙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지원
- ☑ 거리노숙인특화자활사업 실행기관 발굴 및 지원
- ☑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실행기관과의 협력모델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 노숙인 자활사업의 지속화 및 안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실행기관과의 상시 실무협의체 구축
 - 표준 매뉴얼 제작 등 사업지원 체계 안정화 추진



사연 2. 근로하러 가자고 설득하는 거리노숙인 B씨 술 그만 마시고 일하러 가요.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서울역 광장을 청소하는 시간이다. 청소시간 1시간 전부터 희망지원센터 휴게공간은 북적거린다. 거리노숙인특화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미리 와서 인사도 하고 휴게공간에서 티브이도 시청하면서 청소 근로를 기다리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모두 제각각이다. 햇볕에 그을린 것인지 어제 마신 술이 덜 깬 것인지 얼굴이 벌게져 온 경우도 있고, 조용히 앉아있기도 하고, 휴게공간과 사무실을 수시로 오가며 한시도 쉬지 않고 실무자들에게 말을 붙이기도 한다. 두 시가 가까워와도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진료 받으러 갔거나, 무료식사하러 먼 곳으로 가서 오고 있는 중이거나, 어제 저녁 마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거나, 지금 어딘가에서 낯술을 마시고 있거나 기타 등등이다. 참여자 B씨는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을 하다 프레스에 오른손가락이 눌러 장애를 입었다. 그 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워져 거리생활을 시작했고, 오랫동안 술을 마셔왔다. 늘 술에 취해있고 서울시 특별자활근로 참여를 권해도 음주 때문에 하루 이틀 참여하다 중단하기를 반복했다. 이번에도 겨우 특화자활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술을 마시지 않은 날보다 마신 날이 더 많고 맑은 정신보다 취해있는 날이 더 많다. 초기상담이나 사업설명회, 근로참여 때도 마찬가지다. 음주로 인해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며 아슬아슬하게 넘어가고 있다.

오늘도 2시가 가까워져 희망센터를 내방했는데 몸이 흔들거릴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다. 다가가 “술을 마셨어도 우리가 일하기로 약속한 거니, 서울역광장 청소는 하자.”고 격려하고, “혹시 C씨 못 보셨냐? 모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오지 않으셨다.”고 물으니 들은 채 만 채 하고는 밖으로 나간다. 잠시 뒤 응급대피소에 불 일이 있어 희망지원센터를 나와 파출소지하도로 내려가는데, 파출소지하도 계단 아래에 B씨를 발견했다. 그 옆에서 서너 명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무심결에 지나치려는데 B씨가 옆에 앉은 사람에게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술 그만 마시고 일하러 가요.” 하는 것이 들렸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 보니, B씨가 C씨를 찾아와서 특화자활근로하러 가자고 설득하고 있었다. 자기도 술에 취했으면서 다른 참여자인 C씨를 찾아와서 일 하러 가자고 설득하는 걸 보면서 거리노숙인 분들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그리고 주변 동료도 챙기면서 함께 가고자 한다는 것을,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일텐데 나도 모르게 거리노숙인들에게 편견을 가지게 된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지역별로 다양한 사업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거리노숙인 정신건강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개인상담

☑ 집단심리치료

- 집단상담, 집단심리프로그램, 미술치료, 원예치료, 의미치료, 노래교실

☑ 그 외 프로그램

- 인문학, 레크리에이션, 문화체육, 스트레스 예방

치유프로그램 지원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 개인심리상담

☎ 노래교실

- 문화, 체육, 여가 활동
- 원즈와 함께하는 집단 프로그램
- 원예심리지원
- 개인심리상담
- 인문학 강의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미술치료프로그램

☎ 스트레스 예방 ☎ 집단상담

☎ 나우

☎ 개인심리상담

- 인문학 강좌(역사, 철학, 독서모임, 글쓰기, 영화)
- 집단상담(나를찾아떠나는마음여행)
- 개인심리상담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 의미치료

☎ 미술치료

창원지역자활센터

☎ 심리상담 지원

햇살보금자리

☎ 심리상담



개인상담



물놀이



미술치유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탈 노숙 및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 보건분야 교육

- 방법: 관련기관 연계(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 내용: 보건위생·치위생, 알코올·도박 중독 예방, 금연

☑ 근로·복지정보 교육(용산자활)

- 방법: 담당자 및 기관 내부 진행
- 내용: 자활사업, 근로보호법, 금융관리, 주거복지, 노숙인복지 등

☑ 인문학 교육(수원다시서기)

- 방법: 대학교 인문학 프로그램 연계, 기관 자체 예산 지출
- 진행: 총 41회, 지역 내 대학교 주관 진행

☑ 기타

- 기본소양 교육: 센터 사업 안내 및 기본적 소양 교육
- 공동체 활동: 생활나눔, 생일파티, 장보기
- 문화활동
 - 센터 운영 카페에서 진행하는 대시민 프로그램 참여
 - 독립영화 감상 및 토론

I 교육 프로그램 지원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알코올, 도박, 금연 교육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기본소양 교육

중독 예방 교육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

보건 교육

알코올 중독 예방

서울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공동체활동

반사회

문화활동

서울용산지역자활센터

사전모임

용산자활 및 자활사업 안내

보건위생

보건위생(결핵, 치위생)

근로보호법

금융관리

주거복지

노숙인복지사업

차상위/조건부수급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한신대 어깨동무 인문학

햇살보금자리

알코올 중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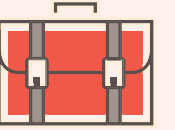


기본소양 교육



인문학 강의

지역별로 특화된 거리노숙인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 거리 청소

☑ 기관 내 보조인력

- 무료급식 보조, 아웃리치, 기관 교육장 등 청소

☑ 임가공작업

- 종이백, 소모품

☑ 외부 파견(기관 협약 통해 진행)

-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설거지 및 청소(노인복지관)
- 환자 위생관리(정신병원)
- 기부 물품 판매처 기증물품 분류·진열(장애인직업재활시설)

I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 ☑ 지역 주민을 위한 정비사업
- ☑ 행복홀씨 입양사업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 ☑ 일상회복

디딤센터

- ☑ 여성일터프로그램_임가공작업장
- ☑ 여성일터프로그램_공익일자리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

- ☑ 노.다.지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 ☑ 희망클린단

서울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 청소사업

서울용산지역자활센터

- ☑ 청소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 ☑ 근로파견형
- ☑ 공익형(어르신 식사도우미)
- ☑ 케어형(병원위생관리)
- ☑ 파견형(굿윌스토어)

창원지역자활센터

- ☑ 일자리 지원

햇살보금자리

- ☑ 마을청소



거리청소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매장 기증품 분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소개합니다!

“기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던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인 중앙자활센터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개편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16일(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개정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을 축하하고, 자활사업의 발전과 도약을
다짐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기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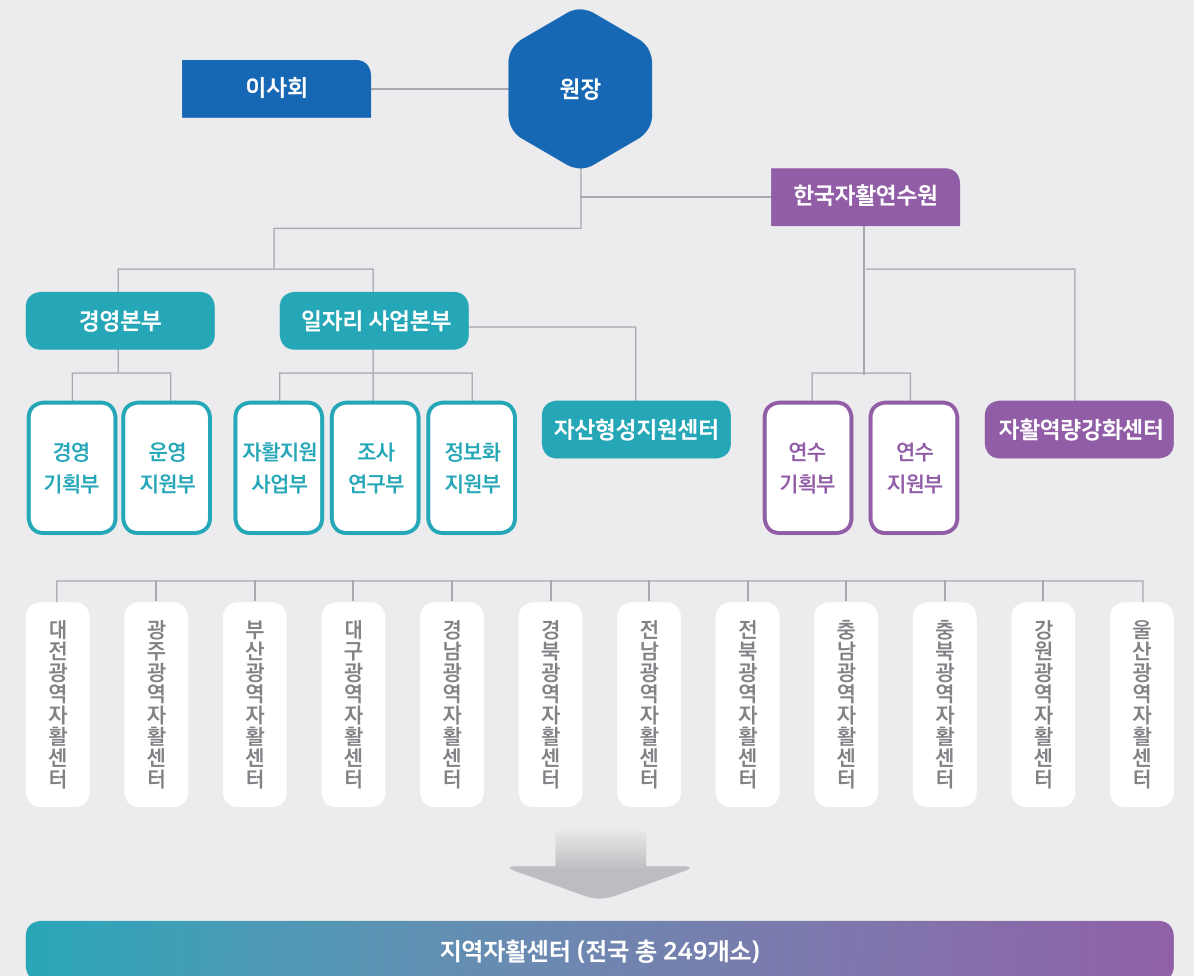
자활복지개발원은 광역자활센터(2개소)를 수탁 운영하여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을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 위주에서 차상위계층
등의 빈곤 예방 방향으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
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자활사업 활성화가 수급자,
차상위자 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수입을 지원해 소득 1분위 계
층의 생활여건이 나아지고 빈곤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
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자활 일자리 1만개 추가, 자활참여자의 급여 인센티브제, 차
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설 등 자활 참
여자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규 사업 분야를 적극적
으로 개척해나갈 계획입니다.



사람 중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너도, 나도 재미나!

대전광역시자활센터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 유쾌한 이현수 센터장과
그보다 더 유쾌한 대전광역시자활센터 식구들을 만나러 “재미나”는 현장에 다녀왔다.
자활로고가 통합되기 전 대전광역시자활센터의 로고는 나비의 형상을 띤 모습이었다.
미국 동화책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에서 영감을 얻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처럼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이 고통과 막연한 기다림이라는 어둠과 같은 가난에서 벗어나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희망 가득한 로고라고 한다.

※대전광역시자활센터의 로고는 2019년 7월 이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로고로 통일되었습니다.



1 대전광역시자활센터 직원들
2 대전광역시자활센터 슬로건



센터를 움직이는 힘,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제 자활 5년 차, 대전광역시자활센터는 외부 지원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크고 작은 외부 지원 사업을 확보해서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에 적용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센터의 장점이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대전광역시자활센터를 대표하는 사업, <재미나>이다.

재미나는 체험학습 공동브랜드이다. 아산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 대전에 소재한 여러 자활사업단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어린이집 등의 공공기관에 재료비만 받고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체험학습은 <천연화분만들기 패키지>, <공예 체험 패키지>, <향기나 체험 패키지>, <국국 체험 패키지> 등이 있다. 선물하기 좋은 고가의 제품 만들기부터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쿠키, 마카롱 만들기 등이 가장 인기이다.

“

재미나게 만들면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체험학습시장이 상당히 큰데
이런 부분을 이차적으로 엮어서
틈새시장을 만들어 볼 수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우리 직원들이 냈어요.

”

“기존에 있는 공예품이나 쿠키를 판매하는 자활사업단의 판매가 부진하거나 홍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재미나게 만들면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체험학습시장이 상당히 큰데 이런 부분을 이차적으로 엮어서 틈새시장을 만들어 볼 수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우리 직원들이 냈어요.”



이현수 센터장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창작품 보다는 생활에 필요한 소품과 갖고 싶을만한 물건을 함께 만들어보고 완성품을 선물로 줄 수도 있으니까 특별하고요.”

자활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체험학습 시스템을 개발해낸 것은 대전광역자활센터 직원들의 몫이 크다. 이벤트 형태로 진행하던 체험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하나의 사업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센터에서 자체적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외부 사업 공모를 통해 3년~5년 이상 거둬 보완하며 ‘재미나’라는 하나의 사업을 완성했다.

자활 주민을 선생님으로

“자활에서 재미있게 참여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누렁지만 팔지 말고!(웃음)”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된 재미나 사업은 극단 ‘아깽없이 주는 나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 극단 역시 공연 제작을 통한 수입에 한계를 느끼고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문화 예술 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극단의 교육수익이 전체 수입 재정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성공사례를 확인하고 교육, 체험학습 시장의 문이 크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다.

대전광역자활센터의 새로운 도전은 성공적이었다. 체험학습을 진행할 학교나 센터에서 재료비만 받고 체험학습을 제공하면, 학습자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체험학습 제품 역시,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완성도의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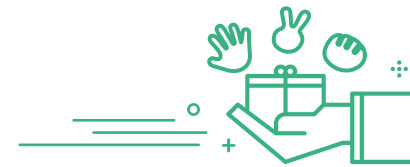
“이번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하는 토요 프로그램

에서도 해봤고, 노인 대상, 장애인 대상으로도 했는데 참 만족도가 높아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창작품 보다는 생활에 필요한 소품과 갖고 싶을만한 물건을 함께 만들어보고 완성품을 선물로 줄 수도 있으니까 특별하고요.”

이런 체험학습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강사가 필요했다. 센터는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것 대신 재미나 사업에 동참하는 각 자활 사업단의 참여자 주민을 강사로 키워내는 방법을 선택했다. 강의 경험이 전혀 없는 주민들에게 강의하는 법을 가르치기는 쉽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 없어 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색했다. 이들을 위해 3년에 걸쳐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반복적으로 강사로 파견하는 과정을 거쳐 스피치 하는 방법을 익히고 자신감을 갖도록 했다. 그 결과, 이제는 당당히 “선생님” 소리를 들으며 뿌듯해하는 어엿한 강사가 되었다. 재미나는 이처럼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강사로 활동하는 자활 참여자 주민들도 모두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사업이 전국적으로 규모화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해요. 현재는 연계 정도만 하고 있지만, 재미나 사업은 공동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고 자활에서 하던 기존의 교육 사업을 체험학습시장으로 진출시킬 수 있는 전략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지역아동센터, 학교, 성인 복지관, 문화센터 등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곳



은 무궁무진하다. 재미나 사업은 자활을 아우르는 하나의 커다란 중장기 사업으로 발전시킬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투입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체계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재미나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자활이 체험학습시장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더욱 훨훨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활발한 홍보 비법

대전광역자활센터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뉴스 기사와 블로그, 카페 등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센터 홍보에도 남다른 열정이 느껴져 이현수 센터장에게 노하우를 물었다.

센터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형태의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먼저, 대표적인 온라인 홍보 방법으로는 ‘카카오플러스친구’를 활용한 “자활프렌즈”가 있다. 카카오플러스친구에 ‘대전광역자활센터’를 검색하고 친구 추가를 하면, 자활과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오프라인 활동으로는 ‘자활 서포터즈’ 활동과 언론 홍보, 광고를 통한 홍보 등이 있다. 자활 서포터즈는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거나 현장체험학습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서포터즈로 구성하여, 활동 후 느낀 점을 포함한 후기를 블로그에 올려 홍보하는 방식으로 센터를 알리고 있다.



1 재미나 꽃내음공예사업
2 재미나 단미공방



큰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전의 ‘중도일보사’와 연계하여 언론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광고를 활용한 홍보’는 굉장히 인상 깊었다. 대전의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지하철 광고면을 기존에 있는 자활 사업단을 연계하여 무상으로 청소해주는 대신에 그곳에 자활 광고를 싣는 것이다. 광고에 대한 예산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 오픈한 광고매체를 활용한 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홍보 방법이라 여겨진다.

“홍보나 광고 효과는 한번에 되는 게 아니라 3, 4년 정도의 지속적인 온라인·오프라인의 홍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반복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자활상품을 인터넷 어디서 봤는데 이게 저기도 있네!’ 하면서 주문전화가 오는 거죠. 여러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

억지로 시켜서 안 되거든요.

재밌고 유쾌하면서도 지칠 때 서로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려고 팀장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구슬을 바늘에 꿰어 하나의 목걸이를 만드는 것처럼

대전광역시자활센터는 매년 ‘자활한마당’이라는 시민과 함께 하는 자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 (월)에 진행된 <2019 대전자활한마당>는 뮤지컬과 개그의 만남, ‘뽀뽀(FUN FUN)한 클래식’ 축하 공연이 인기를 끌었고, 대전의 지역자활센터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모여 ‘홀로아리랑’ 합창을 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 구성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 센터장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자활한마당’은 4년 전 진행했던 ‘자활생산물 박람회’이다. 서대전 시민광장이라는 큰 광장에서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자활생산품의 신상품 위주로 박람회를 구성하면서 판매도 병행했던 이 행사는 지역 사회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자활상품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되었고, 무엇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하는 큰 행사를 개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나 홍보 전략은 대전광역시자활센터 식구들의 파트너십에서 나올 수 있었다. 8명의 직원 모두가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받고, 무슨 일이든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결정해나가는 업무 분위기가 센터의 분위기를 더욱 활발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느껴졌다.

1,2 2019 대전자활한마당



“억지로 시켜서 안 되거든요. 재밌고 유쾌하면서도 지칠 때 서로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려고 팀장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위기가 좋아보니 직원들 사이의 유대 관계도 좋아 직원들끼리 여행이나 여가활동도 자주 즐긴다고 한다.

이런 대전광역시자활센터의 앞으로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카카오톡 ‘자활 프렌즈’처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회원조직을 구성하는 일이다. “협동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정부 보조 사업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활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회원조직이 필요하다고 봐요. 자활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회원조직을 통해 이벤트 홍보도 하고 생상품 판매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말이죠.”

두 번째 목표는, 사업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별, 단위별 ‘조직화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센터에서 하는 활동이 다양한 만큼 연계된 협력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이 많은데 이들의 활동이 2차적인 활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슬을 바늘에 꿰어서 하나의 목걸이를 만드는 것처럼 필요한 부분들을 잘 엮어서 진행 중인 사업에 활력을 펼 수 있도록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



더욱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함께하는 새로운 자활이 더욱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이현수 센터장은 “자활복지개발원으로 모범인이 바뀌면서 부족했던 예산이 채워지고 그 예산이 현장에 전달되고, 개별적으로 접촉했어야 하는 부분들이 개발원을 통해 빠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것이 긍정적인 변화”라며, “순환보직을 통한 인사교류로 각 지역 간 편차가 없어지고 모든 지역이 상향평준화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진 각각의 지역에서 각개전투하듯이 법인이 다르고 활동하는 방법도 다 달랐지만, 능력 있는 직원들의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면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파트너십 형성에도 도움이 되어 자활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센터장의 생각이다. 개발원이라는 하나의 큰집에 들어간 만큼 개발원에 소속된 지역센터들과의 협력을 통해 직원들이 개발원 직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일에 임하고 이를 통해 자활이 더욱 단단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 🌟

저는 뭐든지
다 해보고 싶어요.

자활임기 애독자, 김창현 씨를 만나다.

지난 「자활임기 제24호」를 무려 20부씩이나 따로 주문하여
자발적인 홍보를 해주신 애독자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직접 만나기 위해 경북 안동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자활임기를 알게 되었고,
또 어떤 계기로 자활임기 홍보를 하시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안동지역 친절한 주차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 김창현이라고 합니다.
사업단에서는 자동차 요금을 받는 등의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참여했던 택배사업 기간까지 포함하여
자활에 참여한 지는 총 10년이 되었습니다.

”



모두가 자활을 통해 '자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6년 전이었을 거예요. 자활센터 교육실에 방문했다가
책꽂이에 꽂혀있는 자활임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
다. 궁금증이 생겨 읽어봤는데 자활과 관련한 좋은 소
식도 담겨있고, 사업단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의 생활
수기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했어요.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활에서 겪은 이야기라든지 그런 게 좋았습니
다.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어요.

지난 호의 임형석 대표님(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르신들 이야
기를 귀담아듣고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
요. 저도 노인정에 있는 어르신들께 쌀 배달하면서 제
마음으로 제 돈을 써서 사탕 하나씩을 드리곤 했거든
요. 그게 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많이 편찮으신 분들
이 계신 병원이나 의료원에 자활임기를 많이 가져다
두곤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모여 계신 그런 곳
에요. 그리고 전에 제가 교육을 받을 때 보니까 젊은
학생들도 (센터에)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학교에도 홍
보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를
통해 자활을 알게 되어서 자활 참여자가 된 분들도 여
럿 있습니다. 병원, 의료원뿐 아니라 동사무소와 같은
관공서와 노인정에도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인데 처음엔
다들 시큰둥하게 놓고 가라고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재밌더라.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며 어디서 주문
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세요.

“웃음을 잃지 말고 늘 건강하세요!”

자활센터에 궁금하고 바라는 점은 다른 것보다 자활센
터의 이름을 ‘협력센터’로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
로 협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자를 썼고 ‘역’자는 힘
을 내자는 뜻으로 협력센터라는 이름을 생각했어요.
(홍보를 다니다보면)사람들이 그래요. ‘재활은 들어봤
는데 자활은 못 들어봤다’고. 자활센터라는 이름이 거
리감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업신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생각하게 되었
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많지만
일단 제가 주차사업단에 들어왔으니까 주차사업단을
나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향
상 건강하시고 식사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몸이 아프지만, 몸이 망가지지 않게 일하셨으면
좋겠고, 무슨 일이든 웃음을 잃지 않고 하시는 게, 그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김창현 씨와의 짧은 인터뷰를 마치고 ‘이분은 참 정이
많으시구나.’ 생각했습니다. 나 먹고살기 바빠서 다른 사
람을 생각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세상에서 함
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자
활’을 홍보하시는 김창현 씨의 정(情)이 느껴져 참 따뜻
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고 최
선을 다해 살아가는 김창현 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
다.



1 친절한 주차사업단 직원들
2 친절한 주차사업단 주차 공간



자활로 취업보내기

청년자활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취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매일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을 청년 자활참여자분들에게 힘이 될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청년자립도전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의 성공스토리가 전국에 계신 자활참여자분들에게 희망의 날개가 되길 바랍니다.

*청년자립도전사업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자활 사업입니다.

성공스토리 01

사업단과 자활기업의 상호연계성,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쉼터생활을 하다 청년사업단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쉼터에 갔습니다. 이후에 쉼터에서 자활사업 소개를 받고 여기(청년사업단)에 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사업단에 참여하였고, 4월 말까지 참여하다가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단에서 충주 연수원 교육도 받고, 제주도 선진지 탐방도 갔었는데, 제주도에 다녀온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자활이라는 명칭을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선진지를 돌아다니며, 참여자분들과 네트워크 하던 시간이 좋았습니다.

인턴형으로 근무를 하다 채용이 되었습니다.

(취업한)○○자활기업 대표님도 자활사업단 출신이신데, 대표님이 일할 만한 청년이 있는지, 센터에 먼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회가 되어 제가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턴처럼 근무를 하였으나, 대표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회사에는 현장업무와 행정업무가 있는데, 저는 현장업무로 현재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익

숙지 않았지만,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괜찮고, 기술도 익숙해져서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은 2명 정도이며, 저는 청년 혁신가 부문으로 뽑혀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숙련된 전문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어딜 가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청소업무부터 시작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향후 에어컨 설치업무를 맡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청소업무만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다 보니, 에어컨 분해와 조립 정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적으로 더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청년사업단 담당자 INTERVIEW



지역센터와 자활기업과의 상호연계가 취업에 큰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올 때 주로 뚜렷한 목표 없이, 자활사업에 반강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센터와 자활기업의 연계가 중요하게 여겨 집니다. ○○○자활기업의 경우, 대표님이 저희 센터 사업단 출신이시다 보니, 더 연계가 잘되었습니다. 센터에서 추천해준다고 하니, 신뢰하고 채용하겠다는 그런 상호 간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사업단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청년혁신가로 채용하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주셨습니다. 센터에서 추천해주면 채용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3주간 실습 후에 바로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경우 센터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실무자분들의 관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공스토리 02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요.

저의 상황과 딱 맞는 사업단을 찾았어요.

저는 2017년경부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다. 계속 집에서 공부하다가 올해 초 구청에서 연락을 받아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바로 근무현장에 투입된다 하여 걱정이 많았으나, 센터 측에서 바로 근무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자기계발 시간이 있으며 근무 시 필요한 자격증 취득에 지원도 해주는 사업단이 있다고 하여 저의 현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어 참여를 결심했습니다.

출근 첫날 아침, 그 어색했던 분위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들 새로운 환경에 긴장이 역력한 얼굴이었고, 좋은 처지에서 만난 사이가 아니라서 더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마음을 몰라 오해도 있었지만, 많은 시간을 공유하면서 마음 맞는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서로 어느 정도의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부산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자기이해와 자존감향상을 통한 정서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집단상담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여러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경험이 굉장히 색달랐고, 마음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필기합격만을 목표로 달려온 저에게 그 이후의 미래에 대해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어 근시안적이었던 저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이루고 싶었고, 공무원이 그 시작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양친을 여의고, 큰덕에서 자랐습니다. 집안에서는 제가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하였고 그에 부응해 처음에는 간호학과에 진학하였으나, 평생의 업으로 삼기엔 개인적 성향이 맞지 않는 것 같아 다른 방향을 모색하던 중 저 혼자서도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에 뜻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라는 사업단을 알게 되었는데,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장에 투입된다면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성도 올라가고 그에 따른 자신감도 생길 거라 생각되어 공무원시험과 자격증 취득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시험이라는 것이 어떠한 가시적 성과가 눈으로 보이는 시험이 아니라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합격과 불합격뿐이기 때문에,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을 땐 좌절하고 ‘이만 포기할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대부분 취직하여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만 동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에 조바심이 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국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저를 응원하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용기를 받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3년 전 수급자 자격도 박탈되고, 뚜렷한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저에게 연락해 공부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단이 있다고 알려 주신 사회복지과 공무원분이 계셨습니다. 성함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 면접에 꼭 합격하여 그분처럼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자격증도 따고 교육도 받고, 핑 먹고 알 먹기!

교육지원과 취업 준비를 병행할 수 있어요.

조건부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선 자활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자활 활동과 다르게 본인이 원하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고, 관련 학원, 자격증 지원도 되면서 자활 활동 급여도 나온다고 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에서 청년자활과 관련하여 4박 5일간 연수를 받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 진로에 대해 자신감이 하락하고 있었을 때, 저와 적합한 직무를 찾고 그에 관한 커리어 패스(career path)를 성립하는 과정은 저에게 진로를 되새겨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취업 후 실무에서 사용될 자격증과 인적성 교재, 자격증 교재 등의 취업을 위한 기반을 쌓는 것에 대한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지원 사항과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업단에서 아낌 없이 지원해주셔서 자급에 대한 부담감 없이 인적성 시험,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여 합격한 것 같습니다.



결국 목표했던 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화학공학부를 전공하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해 이력서를 넣던 중, S 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전까지 목표가 ‘생명화학공학자’였는데 생물, 화공 전공자를 모집하길래 S 기업 계열사 중에서도 S 기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목표했던 꿈을 드디어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저는 탈락하고 같이 면접을 본 친구는 합격해서 결국 최종 입사를 했을 때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잘된 것이니 축하해주면서도 온전히 축하해 줄 수 없었던 제 신세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이후에 가족들을 비롯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면접 상황에서 제가 부족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보완해갈 것을 찾아가고 저를 더욱 단련해가면서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마라톤 출발선에 서 있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저는 지금 신입사원 연수를 받고 있는데요, 부서배치를 받게 되면 뚜렷해지겠지만 일단은 정해진 부서와 관련된 분야의 공정관리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직무 경력을 쌓은 뒤에는 화공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제 직무능력을 더욱 인정받고 싶어요. 그 이후에는 경력과 실력을 인정받아서 파트장까지 하고 싶습니다. 취업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수급자라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시작하는 것도, 달리는 것도 힘들겠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완주에 성공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이 뚜렷하다면, 청년자활센터에서 지원을 받으며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목표가 없다 해도, 상담을 통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나갈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자라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시작하는 것도, 달리는 것도 힘들겠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완주에 성공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이들이 사업단에 공통으로 바라는 점은 지원금액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업단에 참여하는 3년의 기간 동안 참여자가 교육비로 지원받는 금액은 1인당 220만 원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먼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참여자일수록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는 데는 조금 부족한 금액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참여자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교육비나 교통비에 대한 지원 부분이 확대되어서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예비 사회인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강원광역에서 전하는 이야기

청정 지역 강원 고성! 건강한 지역 만들기

김지윤 고성지역자활센터 어골진토&땅골농장사업단 팀장

“송정리에 가면 ○○도 있고, ○○도 있고~”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 이름만 들어도 청정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송정리라는 곳이 있다.

온통 푸르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 송정리에 과연 어떤 사업단이 있는 걸까?



땅을 이롭게, 작물을 건강하게,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송정리에 위치한 어골진토사업단은 사람과 환경 모두를 생각하는 고수레 어액비를 제조하고 있다. 고수레는 ‘땅을 이롭게 함으로써 풍년을 기원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제품명이고, 어액비는 생선 부산물을 이용하여 만든 아미노산 액상 비료를 일컫는 말이다.

“저희 고수레 어액비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생선을 통째로 발효시켜 만들고 있어요. 16종의 천연 아미노산을 비롯한 다양한 유기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식물 성장에 아주 효과적이죠. 아미노산 액비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축산액비처럼 악취가 심하지

않고, 질소 과다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고수레 어액비는 지난해 2월 제품 심사를 통해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받았다고 한다.

“우리 어골진토사업단은 관내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어액비를 보급하기 위해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요새는 온라인 판매도 함께하고 있답니다. 최근 주말농장과 소규모 텃밭농사가 도시인의 인기 있는 취미생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1짜리 소용량 포장재와 상세페이지를 제작하여 본격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죠.”



1 고수레 어액비 사용 모습
2 땅꿀농장사업단의 건강한 닭들



김지윤 팀장은 강원광역자활센터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전했다. 어골진토사업단을 운영하며 가장 큰 시설 투자는 고성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마련했지만 나머지 막대한 부분은 모두 강원광역자활센터 덕분에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광역 센터에서 진행하는 창업 인큐베이팅을 통해 선진 지견학도 다녀오고, 또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 는 비료전문 업체가 아닌 사회복지기관에 농민지원사업을 맡긴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광역과의 결합을 통해 신뢰도도 높일 수 있었다.

좋은 판로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무상으로 구하게 된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어액비 재료로 들어가는 생선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광역센터의 담당 계장에게 화천군에서 생태계 교란종인 배스 포획 사업이 있다는 정보를 전달 받았다. 덕분에 직접 화천군을 찾아 사업을 소개할 수 있었다.

“화천군은 포획 후 별도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저희는 어액비 자재를 무상으로 얻게 되는 ‘윈윈’ 협약이었죠. 몇 회에 걸쳐 자재가 충분히 수급됐고, 향후에도 지자체 간 의미 있는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족 건강을 사수하라! 착~한 땅꿀유정란

어골진토사업단 바로 옆에 위치한 땅꿀농장사업단에서는 유정란을 수집하여 배달판매하고 있다.

“땅꿀농장에서는 항생제, 촉진제, 착색제 등 인위적인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무항생제 인증까지 받았죠. 하지만 땅꿀농장의 진짜 자랑은 닭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자연양계 방식을 고집한다는 것이에요. 실내에서 실외로 이어지는 드넓은 농장 안에서 우리 닭들은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항상 자유롭게 뛰어다녀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란 닭이 낳은 유정란이니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겠죠?”

땅꿀농장사업단은 무항생제 인증 취득에 이어 올해 3월 29일 HACCP농장 인증까지 취득하였다. 사업단 참여자가 직접 HACCP서류를 관리하고, 입추부터 출하까지의 모든 공정을 HACCP시스템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일반적인 계사는 보온에만 중점을 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공기가 매우 혼탁하고, 바닥도 금방 습해지죠. 이때 콕시듐이라는 원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악취의 주원인이예요. 보통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항생물질을 사용하곤 하는데, 저희 농장에서는 EM이라는 유용한 미생물을 활용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땅꿀농장은 닭들의 건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게다가 참여자 선생님들이 정말 매일같이 계사 내부와 그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세요. 닭들을 많이 아끼시거든요. 땅꿀농장은 정말 그야말로 닭들의 천국이죠!”

땅꿀농장사업단은 현재 동물복지 인증 취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확인 중에 있다.

농촌과 어촌이 공존하는 강원 고성

강원 고성은 말 그대로 농촌과 어촌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고성지역자활센터는 이러한 지역특성을 자활사업에 잘 녹여내고 있다. 어골진토사업단과 땅꿀농장사업단도 그 중 하나이다.

“저희 센터에는 지역개선을 위해 힘쓰는 사업단들이 많아요. 지역 공원을 관리하기도 하고, 주말농장을 분양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동네곳곳에 숨어있는 칙칙한 벽에 고성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그려 활기를 불어넣는 벽화사업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나마 고성 주민들이 소소한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고성지역자활센터는 최근 비전워크숍을 통해 센터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 재정립하고, 각 사업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워크숍을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건강한 지역 만들기 위해 항상 앞장서며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에 대해 도전할 것이라고 하였다.

고성지역자활센터 어골진토사업단&땅꿀농장
문의 033-682-9117

실제
땅꿀유정란 후기

★ 후기를 통해 검증된 **꼼꼼하고 안전한 배달!**

“진짜 포장 엄청나다...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게...? 이걸 배송하려면 포장비가 더 들 듯. 땅꿀유정란...대박인 듯”
-구지님의 <우리일기> 블로그-

★ **싱싱하고 비지지 않은 고소한 맛!**

“뜨끈한 밥 위에 땅꿀농장 착한 유정란 한 알을 깬다. 흰자가 아주 투명하고 노른자도 선명하니 좋다.”
-장여신님의 <적재적소 찾기> 블로그-

협업하며 먼저 시작하는 센터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 최민준 센터장



“

유품정리 및 홈클리닝을 하다 보면, 오물 등으로 인해 악취가 심한 편이라 쉬운 업무는 아닌 편입니다. 그렇지만 의미가 있는 일인 만큼 참여자분들이 뿌듯해하시죠.

”



1,2,3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 내부 모습



은평지역자활센터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올해 성과평가 최우수센터로 선정된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의 최민준 센터장님을 만나보았다.

“은평지역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많은 편이고, 은평구에 알맞은 사업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이 많다 보니 초기비용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 분야의 파견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은평지역자활센터는 자치구와의 관계가 우호적인 편이라 협업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병원협력사업단은 은평구가톨릭병원의 별관 청소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은평클린사업단은 비수익 사업으로 독거어르신을 위해 유품정리 및 홈클리닝을 진행하고 있다.

“유품정리 및 홈클리닝을 하다 보면, 오물 등으로 인해 악취가 심한 편이라 쉬운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미가 있는 일인 만큼 참여자분들이 뿌듯해하시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가 생기면서 유품정리뿐만 아니라 저장강박 등 사업의 수요도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사전 답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또한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하게 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환자식(食) 배송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작은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작은 시작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은평자활센터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



일단 시작합니다.

은평지역자활센터는 ‘아소르’라는 소식지를 2006년부터 분기별로 발간하여, 올해로 14년 차가 되었다. 분기별로 사업단 소식, 기관행사 등을 꾸준히 전해오고 있다. 주민들을 위해 센터직원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과 외부 후원금을 모아 쌀, 자전거, 이불, 캠핑도구를 후원하기 시작한 것도 4년째이다. 이러한 나눔 실천을 소식지에 신고,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나눔에 동참하니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다.

“작은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작은 시작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은평자활센터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저희 센터 직원들은 아이디어를 작은 것이라도 내면 아이디어 개당 5,000원씩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소소한 상금이 직원들의 열띤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게이트웨이 과정에서 DISC교육이 좋다는 의견을 듣고, 다음 분기에 바로 해당 교육과정 시간을 늘리는 등 최 센터장은 현장의 소리를 듣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바로 실천하는 것이 센터의 옳은 방향이라고 하였다.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의 수상 실적〉

첫 최우수, 그 뒤에는...

은평자활센터는 성과평가에서 우수는 많이 받았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최우수’를 받은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 “성과평가에서 올해 처음 최우수를 받았는데, 자치구에서 축하 화분도 받았습니다. 평가와 무관하더라도 센터가 일은 진행할 수 있지만 자치구의 지원과 관심 없이는 유지하기 힘들죠.”

올해에는 8월부터 서울시 돌봄SOS센터와 어르신 식사배달서비스를 진행하고, 10월부터는 미셀푸드와 협약을 체결하여 암환자식 배달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평가는 평가 주기가 2년으로 바뀐 첫 평가입니다. 사업은 모든 센터가 열심히 하겠지만,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년 단위 평가처럼 준비를 했고, 그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관리자가 평가에 관심을 갖되 너무 평가에 매달리지는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취업 관련 사업을 예로 들자면 평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가입 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취업 자체에 의미를 둔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 게이트웨이과정에서부터 취업 의사를 묻고,

주기적으로 취업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격증(기금, 예산) 취득지원을 한다. 이후에는 면접을 동행하고, 연간 목표 인원을 세운다고 한다. “물론 자활사례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취창업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미약자분들이나 생계비 지원을 위해 참여하신 분들께 취창업은 먼 이야기이죠.” 센터에서는 사례관리를 통해 취창업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리스크를 없애주거나, 감소시켜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라고 보고 있다.

현장을 위한 법률, 노무, 세무 자문단 구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법률, 노무, 세무 분야 등 전문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 체계가 미흡한 편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요구가 많은 편이나,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분야별로 개발원에서 비상근 자문단을 구성하여, 소정의 자문료를 센터에서 지급 받고 홈페이지에 답변으로 자문을 1주일에 1번씩 해준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 센터장은 자문단 구성이 현장에서 많은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보며, 현장과 소통을 더 가까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1,2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 소식지 ‘아소르’



Born to be 공공(公共), 자활

공공자원 현황분석 및 자활사업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



“Born to be 공공, 자활” 자활은 본래 공공(公共)을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자활사업은 공공과의 계약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개발·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의 등장으로 공공영역에서의 자활사업의 입지는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이런 상황의 원인을 정보 접근 및 정책 분석의 한계 등으로 사업이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중앙 및 광역자치 단체를 범위로 한, ‘공공자원 현황분석 및 자활사업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활과 공공자원,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요?

중앙 및 광역단위 정책분석 결과,

- ☑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확대와 사업 추진의 가능성 확인
- ☑ 공공성의 확대와 사회적가치의 증명 필요
- ☑ 융·복합형 사업 개발과 지역기반의 부각
- ☑ 제도개편, 대상자 확대에 따른 혁신형 사업개발 필요
- ☑ 다양한 제도,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자원 확보
- ☑ 광역지자체별 지역특화형 사업개발의 흐름과 환경 분석



중앙단위 연계가능사업 총괄표



	제안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1	사회적농업	➤ 사회적농업 영역에 자활사업 반영도록 제도개편 제안 ➤ 사회적농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인력 양성	➤ 광역단위 사회적농업TFT 구성 ➤ 자활기업 설립 컨설팅 지원 ➤ 광역단위의 사회적자원 확보와 네트워크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 중앙단위의 커뮤니티케어 논의 구조에 결합 ➤ 시범사업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자활결합형 모델 발굴	➤ 광역단위 시범사업 논의구조에 결합 ➤ 광역단위 커뮤니티케어 TFT 구성하고 광역특화형 사업모델 발굴
3	마을관리 협동조합	➤ 지역재생사업에 대한 자활센터들의 민감도 강화를 위한 교육 ➤ 공모사업을 통해 시범지역 선정 후 집중지원	➤ 지역조사를 통한 시범지역 선정과 자활 주체 발굴 ➤ 지방정부 및 도시재생 전문기관과의 협약과 협력체계 구축
4	군인복지사업	➤ 국방부와 협약을 통해 제초 및 조경사업의 경우 지역 자활사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조경분야 전문성 강화와 전국 혹은 광역단위 자활기업 설립을 통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접근 자격 보유	➤ 지역별로 배치된 사단 단위와 취업 연계 협약체결(취약계층 우선 취업 연계) ➤ 조경분야 전문성 강화와 광역단위 자활기업 설립을 통해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접근 자격 보유
5	반려견사업	➤ 반려동물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활연수원에 교육 과정 개설 ➤ 반려동물 관련 전문 민간기관과 협력(협약)을 통해 전문성 확보	➤ 지역에서 반려견, 유기견과 관련된 시설 및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 ➤ 공공영역 중심으로 반려견, 유기견 관련 시설 관리 ➤ 이후 반려견 관련 상품 제조 및 서비스 분야로 확대
6	도시숲 (공원녹지) 사업	➤ 조경관련 전문가 양성 및 자격 확보 ➤ 조경분야 전문성 강화와 전국 혹은 광역단위 자활기업 설립을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 접근 자격 보유	➤ 신규녹지시설 확대에 대한 기초 조사 ➤ 기존 기간제 계약직이 투입된 사례의 경우 인건비로 배정된 사업비 성격을 시설비 및 운영비 성격으로 변경되도록 지자체에 요청 ➤ 광역단위 사업단 및 자활기업 설립
7	공공·문화관광 시설 입점		➤ 신규 시설물 및 문화,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기초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 신규 시설물 설립단계부터 자활사업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

광역단위
연계가능사업
제안

- ☒ 광역 시도별 연계가능사업 제안 방법은 크게 다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중앙정책 단위에서 제안한 사업을 광역과 기초 단위에서 공공과 자활사업의 연계 가능성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아이템을 도출합니다.
- ☒ 지역별 일반현황과 정책현황을 바탕으로 지역별 현안을 살피고, 중앙 정책단위에서 제안된 아
이템들이 광역단위 실행계획으로 추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연계가 가능한 사업 아이템을
제안합니다.

광역단위
연계가능사업
요약

시도	제안사업	개발원 및 광역자활센터 역할 요약
서울시	➡ 태양광사업 : 시설관리 및 청소	➡ 태양광 유지관리에 대한 정책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 ➡ 설비 및 기자재 공급 및 기술교육
	➡ 도시숲 : 자투리공간 녹지 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 광역단위로 관련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신규 녹지공간의 유지보수를 맡도록 제안
부산광역시	➡ 경로당 시설현대화 및 지원서비스 사업 : 집수리, 청소, 음식서비스제공	➡ (가칭)경로당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단 광역사업단으로 구성 ➡ 부산시 대한노인회 등 관련 기관과 논의구조 마련 ➡ 경로당 사업의 핵심 주체인 대한노인회 등과 협약 추진
	➡ 커뮤니티 케어	➡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단 및 논의구조에 광역자활도 결합 ➡ 주거복지 - 돌봄 등 관련 업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통합적으로 접근
인천광역시	➡ 도시재생 : 마을관리협동 조합 참여	➡ 주민들이 마을주택관리소를 설립 시 주민의 역량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결합(주민주도 영역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준수) ➡ 해당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강조 ➡ 더불어 마을 추진부서와 연계가능성 논의
	➡ 도시농업 : 상자텃밭 제작 및 보급, 도시농업공원 시설관리 등	➡ 참여주민 역량강화(도시농업 및 상자텃밭 조성 등) ➡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정책 논의구조에 결합
대구광역시	➡ 도시숲 조성 및 관리	➡ 참여주민 역량강화 ➡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와 신규 조성되는 도시숲 유지관리 협의 ➡ 외부 전문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연계 - 조경 관련 자격 및 설비, 기술지원
	➡ 반려동물 공원 시설관리	➡ 대구시 동물관리팀과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식당, 화장장 관련 자활사업 연계 가능성 제안 ➡ 반려동물 자격증 과정 교육 지원



광주광역시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 고객 편의시설 위탁운영 및 시설 관리	➡ 골목상권 활성화 시범지구 및 전통시장 상인회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자활사업 상생협력' 관련 협약을 체결 ➡ 신규일자리가 자활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회적관계망을 확대
	➡ 신규시설물 유지 관리 및 청소	➡ 민주인권기념 파크,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권역별 노인건강타운확대, 국악당, 문학관 등이 설립 예정되어 있는 바 완공 이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에 자활사업에서 시설유지관리를 담당하도록 유도
대전광역시	➡ 빈집정비 및 공간활용사업	➡ 대전광역시의 빈집정비 사업 추진 시 자활사업 연계가능성 타진 ➡ 빈집정비 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아이템을 선정(꽃밭, 창고, 텃밭, 공원 등)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기반 자활사업단 구성
	➡ 반려동물 서비스 제공 :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매점운영 등	➡ 반려동물 공원 운영 관련 조례 준비 전 관련 추진위원회 및 해당 부서와 자활사업 연계 논의 ➡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 과정(반려동물관리사, 장례 자격증 등) 교육 지원
울산광역시	➡ 고령자 복지주택 관리 및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 지역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 (가칭)실버주택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단 ➡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의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 시 자활사업 연계 가능성 제안 ➡ LH 공사와 고령자복지주택 관련 자활사업 자원연계 협의 추진
	➡ 반려동물 쉼터 관리	➡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 과정(반려동물 관리사, 장례 자격증 등) 교육 지원 ➡ 울산광역시 농축산과에 반려동물쉼터 관리에 자활사업과 연계 가능성 제안
세종특별자치시	➡ 로컬푸드 관련 : 시설 관리 및 어린이복합도서관 매점 입점	➡ 기존 배송사업단과 신규 배송사업에 대한 역할분담 ➡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하여 공공급식 및 유통센터내 물품 배송을 맡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과 제안
	➡ 세종형 농축산물 복학 유통단지 : 배송	
경기도	➡ 생활권별 공공자전거 운영 : 시설 관리 및 청소 소독	➡ 서울시 공공자전거 사업을 사례로 세종시와 협약을 제안 ➡ 초기 자전거 거치대 관리 및 자전거 청소, 소독, 이후 단계는 재활용자전거 수거 및 재활용 사업으로 확대
	➡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 경기도 사례를 기반으로 특수형광물질 도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 ➡ 특수형광물질 재료 및 기구 지원 ➡ 특수형광물질 도표 사업 교육
	➡ 경기 공유마켓 진입	➡ 지역별로 공유마켓 상생협의체에 지역자활센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전통시장의 상인회에 자활사업의 역할 홍보 및 인식 확산



강원도	➡ 효도아파트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대상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 지역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 (가칭) 고령자복지주택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단 ➡ 주요 추진 주체인 강원도 건설교통국 건축과에 신규 사업 제안 및 논의 ➡ 주요 추진 주체인 LH 공사와 고령자복지주택 관련 자원연계 협의 추진
	➡ 로컬푸드 꾸러미 포장 및 배송	➡ 지역 내 농산물 생산-가공 자활사업단, 배송사업단과 연계하여 컨소시엄 구성 : (가칭) 농산물 꾸러미 사업단 ➡ 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와 포장 및 배송 서비스 연계 추진 ➡ 강원도 유통원예과에 농산물 꾸러미 포장 및 배송 사업 제안
충청북도	➡ 태양광 에너지 : 태양광 패널 청소 및 관리	➡ 태양광 유지관리에 대한 정책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 ➡ 광역 단위에서는 태양광 청소 시 필요 도구를 거점별 지역자활센터에 지원 및 교육 실시
	➡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 참여 : 시설관리 및 청소, 매장 입점	➡ 옥천군, 충북도립대, 광역, 옥천자활 등 '옥천군 대학타운형 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협약 체결 ➡ 옥천군을 사례로 충북지역 기술사 및 대학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협약 추진
충청남도	➡ 숲 관리 : 시설관리 및 청소, 위탁운영	➡ 복합자원 투입으로 인해 광역 단위 산림녹지과-지역 단위 산림녹지과-유관청(산림청)의 협업 필요, 연계 TFT 구성 ➡ 숲 관리 및 조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무교육으로 개설,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교육 실시
	➡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 : 배송 및 유통	➡ 푸드플랜 추진 해당 지자체와 배송 및 유통에 필요한 인력 논의 및 필요한 기술 훈련 및 인력 양성 ➡ 푸드플랜 지원센터가 설립되는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유통 및 배송 네트워크' 구성 - 광역사업단 / 광역자활기업화 추진
전라북도	➡ 고군산도 명품마을 만들기 : 자전거, 숙박시설 청소 및 시설관리	➡ 고군산도 지역주민협의회와 일자리 창출 협약체결 ➡ 마을기업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시설관리 및 청소 등과 관련된 분야의 생산자조합원으로 마을사업과 융화
	➡ 신규 시설관리 및 청소	➡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조성, 문화 체육시설 구축, 전북산하 1000리길 활성화, 컬링장 건립, 새만금 박물관 건립 등 문화, 체육 등의 분야에서 공공시설물 신축에 따른 시설관리 및 청소 진입
전라남도	➡ 폐교활용 치매안심마을 운영 : 치매쉼터 및 센터 시설관리, 카페 입점, 커뮤니티 케어 등	➡ 치매 안심마을은 커뮤니티 케어, 시설관리, 매점입점 (유통) 등 복합적인 업종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 ➡ 광역 측면에서 '치매어르신 홈케어 서비스 팀'을 구성
	➡ 사회적농업 -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농타운 운영	➡ 청년자활사업의 시범사업 및 사회적농업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역특화형 모델로 전폭적인 지원 필요 ➡ 시설 및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지역사회 전문 영역 연계와 네트워크 구성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자활이 나아가야 할 길

경상북도	➡ 곤충 생산-유통-가공사업	➡ 경상북도 친환경 농업과 축산정책과와 곤충 산업 관련 자활 사업 연계 추진 ➡ 곤충 산업에 필요한 기반 시설 구축 및 지역 자활센터와 공유 ➡ 곤충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 및 지원
	➡ 할매할매 건강 생활터 구축 - 노인돌봄 서비스 연계	➡ 경상북도 '할매할매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자활사업 연계 가능성 제시 ➡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보급)
경상남도	➡ 공공 가사도우미 서비스 제공사업	➡ 공공 가사도우미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자활사업 연계 제안 ➡ 해당 공약 추진 부서인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자활사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강조
	➡ 청년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집수리 및 리모델링 사업	➡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에 집수리 및 리모델링 서비스와 연계하는 자활사업 제안 ➡ 해당 공약 추진을 위해 도내 사회적기업과 간담회 추진 시, 자활사업도 고려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담당 공무원 대상 자활사업 인식 홍보
제주 특별자치도	➡ 공원녹지 조성 및 도시숲 관리	➡ 제주도 공원녹지부서에 신규 설립되는 도시숲과 쌈지숲 유지관리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가능 여부 확인 ➡ 권역별로 녹지관리 추진단 구성 - 권역별 지역자활센터 총괄 책임 구조
	➡ 공원주차장 및 주차시설관리	➡ 제주국제공항 등 제주 공공시설물 관리 부서와 '취약계층 일자리와 상생' 관련 협약 체결 ➡ 제주시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주차시설 관리 추진단 구성·권역별 지역자활센터 총괄 책임 구조

하나, 제도개선

지역사회 협력적 파트너십을 위한 자활사업 운영 및 평가체계의 변화와 사회적농업, 군인복지사업 등 자활사업 진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 사업추진 방식의 변화와 혁신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위한 공모 및 지원 방식의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 역량강화와 인적자원 확보

광역단위별 지역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분야별 교육 및 훈련, 기술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공공영역의 자활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의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뉴스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

7월 5일(금) 14시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조직이 공동주최하는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였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올해의 우수 자활상품'을 전시하는 목적으로 참석하였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범부처 차원의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인식제고 및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날 개막식에는 경제부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련부처 장·차관, 대전광역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기업, 공공기관, 종교계, 시민사회 대표 등 8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개막식 행사 외에도 각 부처 및 사회적경제조직 당사자들의 학술대회, 포럼, 체험행사 등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부대행사가 마련되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선정 우수자활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지난 7월 30일(화) '2019 보건복지부 선정 우수자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총 11개소 추천 자활기업 중 서류·면접 심사 등을 거쳐 최우수 자활기업인 행복물류 산업협동조합(대전 서구)을 비롯해 기분좋게(전북 정읍), 전북주거복지협동조합 가온(전북 전주), 청소박사협동조합(광주 서구) 등 총 4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협약은 우수자활기업 4개소에 대한 지원 및 협약당사자 간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에 따라 개발원은 지원금 교부 및 사업 현황 모니터링, 사업성과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된다.



2019년 자활현장과 함께하는 성과공유 기념행사 개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12월 5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2019년 자활현장과 함께하는 성과공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0여 명이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올해 제11대 자활명장으로는 나현숙(휴먼 협동조합), 박형래(푸른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2인이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제15회 자활성공·공로수기 공모전에서는 부산 사하구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인 이경숙씨가 응모한 '아모르 파티'가 대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지금의 내 삶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소중한 제도 안에서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게 해 준 사하지역자활센터의 지원과 열심히 살아가려는 내 의지와 함께 가꾸어 온 소중한 나의 삶이다. 행운은 행운에게 미소 짓는 사람에게 다가온다고 한다. 그래서 난 오늘 아침에도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미소를 먼저 건넨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행운이다.”

-제15회 자활성공·공로수기 대상 수상작
이경숙, 〈아모르 파티〉中



Now&News



자활고사를 잘 보려면?

자활읽기 다시 보기!

자활고사 정답은 자활읽기
기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자활읽기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정답을 보내주세요!

문제를 풀고, 정답이 적힌
문제지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정답자 다섯 분께,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담다의 '제주 톡'(말린 감귤)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제 1교시

2019년도 하반기 자활고사 문제지 자활읽기 영역

2019.12

성명 |

01 거리노숙인특화자활사업의 목표
참여자 수는 몇 명일까요?

HINT 2-7p

- ① 100명 ② 150명
③ 200명 ④ 300명

02 전국에 운영 중인 거리노숙인 운영
센터는 몇 곳일까요? **HINT** 1p

- ① 10 ② 11
③ 8 ④ 2

03 대전광역시자활센터의 대표적인 외
부 지원 사업은 무엇일까요?

HINT 10-15p

- ① 고우나 ② 재미나
③ 미우나 ④ 달고나

04 다음 중 청년자립도전사업으로
취업한 직종이 아닌 것은?

HINT 18-21p

- ① 자활기업 ② 공무원
③ 대기업 ④ 연예인

05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두 가지를 적으시오.

HINT 22-25p

06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개원식 날짜를
적으시오. **HINT** 8-9p

응모방법

- Step 1** 자활고사 자활읽기 영역 문제지를 풀고 **정답**을 문제지에 표기한다.
Step 2 정답이 잘 보이게 **사진**을 찍는다.
Step 3 사진을 **이메일**(☞ master@soyapr.com)
혹은 **문자**(☞ 010.8996.0161)로 전송한다.

자활읽기



당첨자 발표

당첨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 www.kdisw.or.kr)에서
확인하세요.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는 방법 어린이 매너 교육이 그 시작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아이,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그런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모두 동일할 것이다.
나는 내 아이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가. 필자는 '행복'을 주고 싶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행복.
내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인간은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
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능력인 사
회성의 발달, 우수한 매너가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엄마, 아빠는 마음으로도 시간적
으로도 너무 바빠서 아이의 사회성 발달과 매너습득
을 위한 교육은 커녕 아이와 같이 있을 시간적, 정신
적 여유가 없다. 매너교육은 말 그대로 가정교육이기
에 아이와 가장 가깝고 아이가 제일 잘 따르는 부모
가, 아이가 가장 많은 시간 생활하는 가정에서 직접
시간을 들여 가르치고 배워야 함에도 말처럼 쉬운 일
이 아니다. 그렇지만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절
대 포기할 수 없는 매너교육!' 이것만 기억하며 차근
차근 해 나가보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매너교육의 기본은

첫째, 부모님이 먼저 바른 매너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는 부모를 보고 감정과 행동을 배운다. 아이는
모방의 천재이다. 아이가 만약 버릇이 없고 인성이 나
쁘다면 그것은 부모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의미이다.

둘째, '안 돼! 하지 마'라고 말하지 않는다.

안 된다고만 하면, 하지 말라고만 하면 우리 아이들은
언제 해보나? 해보면서 혼도 나고 우여곡절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해! 그런데 보다 재밌고 즐겁게 하면서도 모두가 좋
아하는 바른 방법이 있어!'라고 말하면서 시작해준다.

**셋째,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혹은 바른 방
법을 알려줄 때 꼭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터득해서 스스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해줘야 한다. 단, 최대한 아이들의 수준
에 맞춰서 하되, 조금 어려운 말들을 할 땐 그 어려운
말을 풀어서 또 설명해 준다. 그러면 아이의 어휘력
도 훌쩍 늘고 생각하는 힘도 길러진다.

넷째, 놀이와 체험으로 아이들이 배우게 해준다.

우리는 듣는 것은 단 5%만 기억하고, 읽는 것은
10%, 본 것은 30%만 기억한다고 한다. 하지만 직접
체험한 것은 75% 이상 기억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직접 그러한 상황을 보고 느끼게 해주고 체
험함으로써 기억하고 습득하게 해주어야 한다.

매일매일 잠깐씩이라도 꼭 시간을 정해서 엄마표, 아
빠표 매너교육을 시작해보자. 자연스레 내 아이와 정
서적인 교감도 이루어지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신
뢰, 그리고 타인에 대한 믿음, 호감이 생기게 되어 사
회성 발달도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이가 어디서든 누구에게
든 사랑 받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 🍀

| 글 김시은이나<<어디서나 사랑받는 우리 아이 키우기>> 저자

제주를 담다, 제주를 담다

제주톡

제주톡은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에서
제주산 무농약 농산물을 주원료로 건강한 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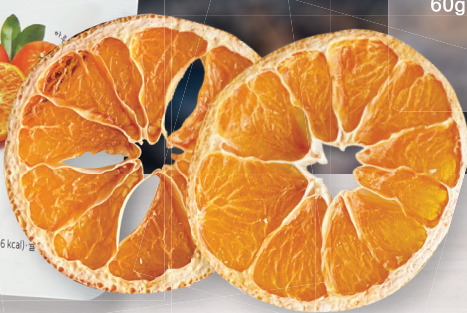


제주산 무농약 인증
노지 감귤 100%

비타민C 1일 권장량의
20g 51.8% 60g 154.8%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주톡 말린감귤

	선물용 상자 20g*3 10,000원
	말린감귤 3입 20g*3 9,000원
	말린감귤 1입 20g 3,500원

제주톡 말린감귤 ▼ 🔍

포털사이트에 '제주톡 말린감귤'을 검색하세요.

구매문의 ☎ 010-8973-8205
상호명 자활기업 제주담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53

제주톡 바삭한 꽃당근,
제주까까, 건고사리도 있어요!

		
바삭한 꽃당근 20g 3,500원 60g 9,000원	제주까까 30g 1,500원 70g 3,500원	건고사리 30g 3,500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